

코로나 취약층 돌봄 틈새 주민들이 메운다

북구 27개동 부녀회·자치회
쌀·밀반찬·과일 등 전달
동·서구도 '착한 나눔' 활동
전남 시·군도 취약계층 돕기

가치 반찬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면 한 세트씩 봉지에 담아 각 가구에 전달될 준비가 끝난다.

주민센터로 나올수 있는 분들은 직접 나와 받아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집집마다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김씨는 "반찬을 직접 전달할때마다 주민들이 고맙다라는 말을 전달때마다 오히려 본인이 힘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고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운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발급해 돌봄 위기 가구 33세대에 지원해 '착한소비'와 '착한나눔'을 실천 하고 있다.

21일 광주 자치구와 전남시·군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코로나19 기존 대책에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광주시 북구 모든 27개 동에서 각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새마을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서 지속적으로 김치와 밀반찬, 쌀, 대체식품 등을 각 동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광주시 동구 학운동, 충장동 등 11개동의 지역사회협의체를 비롯해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 종교단체 등에서도 반찬, 대체식품 꾸러미, 과일,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야해진 심신상태를 위로하기 위해 반려식품까지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동구에서는 주민복합공공공간인 '마을사랑채'가 코로나19 위기대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2동·산수1동 마을사랑채에서는 주민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밀반찬을 만들고, 학운동 마을사랑채에서는 천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다. 목포시 용당1동 통장 7명으로 구성된 '사랑과 열정봉사'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에서 구입한 식자재로 반찬 만들어서 취약계층 22가구에 전달했다. 동명동에서도 7명의 통장이 '새로움봉사단'을 만들어 매월 3째주 반찬을 만들어 소외계층 18가구에

배달하고 있다.

고흥 봉래면에서는 부녀회장 8명이 모여 취약계층 13가구의 전달할 김치를 만들기도 했다. 영암 시종면 자원봉사회 소속 15명은 3월 중순께 김치, 물김치, 오징어 젓갈로 이뤄진 3종류 밀반찬 꾸러미를 만들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해남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취약계층 57가구에 매주 1차례 반찬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 지도회·새마을부녀회·대한적십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용소방대·농가주부모임·주부대학 봉사단·농협경영인회·농민회·이장단·재경향후회 등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떡, 과일, 반찬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최옥철 노인장애복지과장은 "신종 코로나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단체 스스로 나서서 분위기가 높고 있다"면서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적처리도 안하는 시험을 왜 보나” 원격 응시 첫 학력평가 비판 목소리

“학교 방문 시험지 받아가라”
방역 대책 등 학교에 떠넘겨

것이다. 광주 지역 한 고교 교장은 “교육청 지침대로 교문 앞 도로를 막고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오는 24일 학생 등교 없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받아 자택에서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학교 현상이 혼란에 빠졌다.

이번 학평의 의미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학력평가에 대한 전국단위 채점 및 성적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오는 12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첫 모의평가 등급에 따라 앞으로의 공부계획과 목표 대학, 선택과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적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무의미한 시험으로 수험생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첫 학평 주관 교육청인 서울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등교시 세부 방역 지침,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처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3 수험생 A군은 “집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시험지 배부 시간을 고려해 시험은 기존 오전 8시40분에서 한 시간 늦춰진 9시40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고3 학생들은 24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워킹스루’ 또는 부모가 동반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험지를 받은 뒤, 자택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시험지 배부 시간을 고려해 시험은 기존 오전 8시40분에서 한 시간 늦춰진 9시40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도 교육당국이 행정적 부담을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한다. 교육당국은 등교 여부나 실시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결정이 사실상 등교를 강제했다는 분석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우선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시험지를 수령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학생들을 학교로 부르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출근시간대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취약가정에 전달할 도시락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취약가정에 전달할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동신대 학생상담센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동신대학교가 21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상담학회의 ‘코로나19 무료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사과정 재학생 중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맡고 있으며, 동신대 학생상담센터는 이 중 후속 상담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무료 전화상담을 3회 실시한다.

현재 한국상담학회는 매일 정오 12시부터 지정 12시까지 대표번호 1522-8872번으로 ‘코로나19 핫라인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박희현 동신대 학생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마음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상담학회 전화상담 유경험자와 박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반환금 50% 지원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금 지원에 나서 유치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교육청은 휴업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재정결손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4월분 수업료 반

환금 중 5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 휴업은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학부모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수업료를 납부하는 탓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유치원들도 미등록·퇴원 유아 증가로 재정결손이 발생해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원칙적으로 특성화 활동비, 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기타 선택적 경비(현장학습비 등)는 반환해줘야 한다.

수업료의 경우 반환 의무는 없지만, 사립유치원이 이를 학부모에게 돌려주면 교

광주 남구, 양림동 백서로·오기원길 ‘주차 흠뻑제’

광주 남구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마을을 찾는 탐방객 증가로 교통 혼잡이 수시로 빚어지고 있는 양림동 백서로 및 오기원길 구간에 대해 ‘주차 흠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차 흠뻑제가 도입되는 구간은 두 곳으로, 양림교 입구부터 평교마을 앞 오거리까지 백서로 120m 구간과 최근 카페와 상가 건물이 들어선 오기원길 250m 구간 등이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남구는 21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 일대에 대한 불법 주차차 근절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늦어도 오는 6월부터 ‘주차 흠뻑제’를 실시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이웃에게 마스크를 끼겨이 양보하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힘이고 자부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희망을 꽃 피웁니다.

함께
희망을
꽃피웁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